

“파티룸은 단속 안하면서”…룸카페 업주들 뿔났다

여가부, 영업예시 포함 등 개정
“불건전 장소 특정 지침은 부당”
‘자유업’ 편법 운영 악용 우려도

“방문마다 투명 유리창이 있는 데다 침대도, 화장실도 없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라니요. 정작 모든 것을 갖춘 파티룸은 자유업으로 등록해 단속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희만 억울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밀실 구조의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 기준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소년 탈선의 온상지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 당국이 광주지역 유사 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점검 대상 업종을 특정할 수 없는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같은 지침으로 불건전 장소로 낙인찍힌 룸카페 업주들은 ‘룸카페’로만 특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6일 광주 동구의 한 룸카페는 손님 한 명도 없어 적막만이 흐르고 있었다. 이 룸카페는 방마다 여담이문이 설치돼 있었지만 방문 높이에 좁고 긴 투명창이 있어 내부를 훤히 내다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여가부 시설기준보다 창문 크기가 작아 모든 방문을 철거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룸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모델처럼 꾸며놓은 일부 룸카페 때문에 모든 룸카페가 불건전한 시설로 낙인찍혔다”며 “오히려 침대, 개별 화장실 다 갖춘 파티룸이 변종 룸카페 모습과 똑같지 않나. 정작 파티룸은 단속을 안 하고 룸카페만

저격하니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복구의 한 파티룸은 지자체의 단속을 비껴갔다.

무인으로 운영하는 이곳은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면 침구와 TV, 주방시설, 냉장고 등이 준비돼 있어 펜션 등 숙박업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방마다 개별 화장실도 구비돼 있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청소년들도 동성끼리 예약한다면 이용할 수 있다.

파티룸을 운영하는 B씨는 “직접 사 오거나 배달한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낮 시간에 동성끼리라면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다”며 “최근 청소년 출입과 관련해서 지자체가 점검을 나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 출입·고유금지업소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등 결정고시를 일부개정, 지난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다. 기존 고시에서도 밀실로 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이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허가·신고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영업예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룸카페’를 명시한 것이다. 다만 룸카페라 하더라도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 있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제시해 개정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달부터 룸카페뿐만 아니라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등 시설 형태가 유사한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별도의 업종 구분이 없는 탓에 지자체는 점검 대상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형국이다. 특히 공간대여업이나 자유업으로 영



산업용 방제드론 실습교육

호남대학교 무인항공기기 산업용 드론 활용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들이 지난 24일 오후 광주 대한항공교육원 제1비행장에서 전문교관들과 산업용 방제드론의 비행원리와 실기 비행 조종, 운용 관리 등의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김태규 기자

업 신고한 파티룸 등 일부 업장은 지자체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음료를 제공하는 룸카페와 만화카페, 보드게임 카페 등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다. 반면 파티룸은 일부만이 숙박업이며 대부분은 공간대여업이나 자유업으로 영업 신고한다.

기준에도 룸카페와 파티룸 등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자유업’으로 등록해 편법 운영하는 수법이 악용됐다. 현행법상 모텔 등 숙박시설은 반드시 구청의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 사업자 등록만 하면 구청의 허가 없이도 운영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룸카페 등 논란이 된 업체들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업종이 없어 단속 대상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원들이 직접 유사한 시설로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다녀야 한다”며 “단속을 피해 가는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 자산 가집행 신청

1명당 특허권 1건씩 총 4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집행(가집행)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착수했다. 2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은 지난 2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특허권 양무 및 특별현금화명령’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채권자는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김재림 할매

니와 고 오길에 선생의 유족, 고 최정례 선생의 유족이다. 양무 대상은 원고 1명당 특허권 1건씩 총 4건으로,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은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총 6억 8,000여만원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 소송 2건을 광주지법에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3년 넘게 확정판결을 미루고 있다.

이미 1심에서 배상 금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이미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가집행을 미뤄왔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일본의 사죄와 책임을 물으려는 피해자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상황에서 권리행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양 할매니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낸 출연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하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낸 양금덕·김성주 할매니 등 2명은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을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발송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원고인 고 박해옥 할매니의 유족도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민찬기 기자

세월호 9주기 앞두고 진도 팽목항서 추모 순례

세월호참사 9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를 기억하는 추모 순례 행사가 진도 팽목항에서 열렸다.

4·16가족협의회와 서울·대구·밀양·정읍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모임,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등 단체들은 지난 25일 오후 진도 팽목항 일대에서 ‘팽목 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팽목 집종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유가족과 활동가, 청소년 등은 진도군 일회면 입구에서 시작해 기억동산을 거쳐 팽목항까지 약 10km 거리를 도보로 행진했다.

팽목항에 도착한 이들은 기억예술마당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했다.

문화예술인들은 공연으로, 학생들과 활동가들은 추모 발언을 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시간이 지나며 삭아버린 팽목항의 현수막과 노란 리본을 교체하며 ‘잊지 않겠다’는 다짐도 다시 되새겼다.

세월호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하게 되돌아오길 기다리던 팽목은 이제 희생자를 온전히 추모하고 모든 이들이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곳이 됐다”며 “팽목을 찾아가 걸으며 그날의 약속을 다시 다짐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

①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② 중급반 (실전부터 ~)

③ 특수반 (유치권,법지,지분)

④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⑤ 전문반 모집 (직업,수익가능)

• 전문반무료제공- 책상, 컴퓨터 제공,매주1회물건스터디

★ 경매 물건추천 ★

경매일	소재지	종류	감정가	최저가	경매일	소재지	종류	감정가	최저가
3/23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8억9천	6억2천	4/17	김제시 하동	아파트	130억	32억
4/26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50억	28억	4/10	보성군 벌교읍	펜션	130억	5억7천
4/27	광산구 신가동	상가빌딩	13억8천	9억7천	3/27	목포시 무안동	상가빌딩	3억2천	1억8천
4/4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3억7천	3억7천	3/27	김제시 서암동	무인텔	23억	8억2천
4/25	광산구 수완동	근린상가	4억	2억8천	4/3	함평군 월야면	의료시설	35억	12억
4/25	서구 화정동	근린상가	1억1천	5천1백	4/10	목포시 용당동	상가빌딩	9억	6억3천
4/28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	3억1천	1억7천	4/27	나주시 산포면	상가주택	33억	15억
4/27	서구 농성동	잡종지	1억5천	1억	5/1	목포시 옥암동	상가주택	11억	7억7천
4/28	북구 문흥동	농지	2억9천	2억	4/3	함평군 월야면	의료시설	35억	12억
4/12	서구 풍암동	임야	25억	5억7천	4/24	목포시 향동	상가주택	6억8천	4억8천
4/25	광산구 수완동	농지	11억	7억8천	4/13	나주시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54억	24억
4/28	광산구 덕림동	임야	21억	12억	3/27	전주시 완산구	상가주택	6억8천	1억5천
4/28	북구 문흥동	농지	2억9천	2억	4/4	장성군 장성읍	농지	1억7천	1억2천
4/28	광산구 수완동	아파트	7억5천	5억2천	4/27	장성군 북이면	주택	2억9천	2억
4/13	광산구 월계동	아파트	2억8천	1억6천	4/4	영광군 묘량면	공장	8억2천	2억3천

010-6670-9800

062-382-5500